

## 중국의 해남도와 제주도

● 발표 : 金 南 浩 교수

중국 홍콩강 대학 경제학원 동북아 연구소장(경제학 박사)

중국 시장경제연구회 이사(현)

중국 해남 해왕전문 유한공사 총경리(현)

● 저서 : 〈중국의 경제개혁〉 〈신중국의 황금시대〉

중국 해남성의 기본적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하겠다.

우선 해남성의 현황을 요약, 소개하자면 해남성은 중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다. 광둥성에 포함돼 있다가 88년 분리돼 현재는 독립적인 성〈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함〉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하와이와 동일한 위도에 있다. 따라서 연평균 기온이 22~26℃ 정도로 겨울이 없는 지역이다. 연평균 일조시간은 1천7백6시간~2천7백50시간 정도이다. 토지면적은 3~4㎢로 대만보다 약간 작은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섬이다. 인구는 6백80만명인데 90%이상이 한족(漢族)이며 나머지 10%의 소수민족중 90%는 여족이고 이밖에 묘족, 장족, 고산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족은 매우 드물다.

해남도에는 광물,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광물자원의 대표적인 것은 철광석이다. 해남성의 남부에는 매장량이 풍부한 철광석 탄광이 있는데 그 품질은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근처 바다에는 석유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현재 탐사작업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해남성의 경제현황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88년 건성이래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우대정책에 힘입어 연평균 30%의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88년에 성으로 독립되면서 중국에서 가장 큰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동시에 중국에서 유일하게 성자체가 경제특구지역이기도 하다. 성으로 독립된 후 현재까지 5년동안에 활발히 투자가 진행돼 현재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미국 등 40여개국의 외국자본이 투자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홍콩회사에서는 해남성의 중부지역 30㎢의 땅을 매입해 철조망을 둘러서 특구중의 특구로 조성하고 있다. 30㎢의 이 땅을 제2의 홍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다. 매입당시 2백평에 2천원 하던 토지가격이 현재는 2백만원~3백만원으로 폭등했다. 다시말해 해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에서는 해남에 대해 많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외국 자본이 해남에 투자했을 경우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별, 품종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다른지역에 비교해서 해남성의 관세는 50%수준이다. 기초산업과 중국에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투자했을 때는 5년동안 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그후 5년동안에도 소득세의 50%만을 내게 된다. 다른 지역과 달리 외국자본의 경우 이윤의 본국송금도 완전히 자유롭다.

해남의 경제적 발전은 해남의 지리적 여건을 비롯해 높은 자유도와 개방도, 중국정부의 우대정책등이 어우러져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다음, 해남성이 전망에 대해 말해보겠다.

해남성의 전망은 매우 밝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남성의 발전은 97년의 홍콩반환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홍콩의 반환은 순조로울 수도 있고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것은 해남성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홍콩반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중국정부는 해남성을 발전시켜 홍콩과 대등한 또는 홍콩을 능가하는 자유시로 육성하려 할 것이다. 즉 사회주의 제도에서도 충분히 자유시가 육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홍콩반환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의도인 것이다. 중국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의 나라에 두개의 제도(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할 수 있음'을 선전하려는 것이다. 홍콩반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도 중국정부는 홍콩과의 경쟁상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해남성을 발전시키려 할 것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지리적 위치, 중국정부의 우대정책 등에 의해 해남성의 발전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또한 해남성이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해남성에 모여 들었다. 약 1백만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대륙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현재 해남성의 인력자본은 타지역과 비교해 매우 우수한 수준에 있다. 해남성 발전과정에 이들 우수 인력이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해남성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해남성은 중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며 주산업도 관광산업이다. 제주도 역시 관광산업의 비율이 높은 섬이다. 따라서 두 섬은 관광산업에 있어서 교류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1세기는 관광산업의 시대라고들 한다. 관광산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

점 높아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관광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경제에서 지역블록화 현상이 나타나듯이 관광산업에서도 지역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21세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블록화 현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역적으로 가까운 해남성과 제주도와의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의 역사가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도 해남성과 제주도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섬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앞으로 학술적인 면에서도 교류가치가 높을 것이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여러방면에서 해남도와 제주도간에 교류,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